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 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우편구독 신청 031-729-2078

성 남 시
www.seongnam.go.kr

비전 성남

12 DECEMBER 2017

2017년 11월 25일 통권 제269호

11월 17일 성남 단대 행복주택(청년주택) 준공식 때. 입주자 김수환(24) 씨와 내부를 둘러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관련기사 11면〉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2016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민선 6기 성남시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다

"우리 가족은 성남에 살아요"

성남에 살면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날이 춥다. 다인이 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해 커피숍으로 들어선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모처럼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맞아 준다. 어릴 적 다인이 반 친구 엄마들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가 나온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갈 텐데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교복은 어디서 맞춰야 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무상복지의 혜택을 받네"라며 나영이 엄마가 흐뭇해한다. 그러자 얼마 전에 이사해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학시킨 서찬이 엄마 얼굴에는 아쉬움이 그득하다. "그러게 좀 더 있다 가지. 왜 벌써 가", "앞으로 청소년배당도 있고, 청년배당도 있고~." 엄마들이 짓궂게 한마디씩 한다.

무상교복
- ▶ 전국 최초,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 ▶ 2016년 8,561명, 2017년 7,973명(10월 말 기준) 수혜

청소년배당(보건복지부 협의 중)
-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만 16~18세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약 3만5천 명)에게 연간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평하게 지급

청년배당
- ▶ 3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 및 성남사랑상품권 매출과 가맹점 증가라는 부가가치 창출
- ▶ 2016년 1만7,426명, 2017년 1만586명(9월 말 기준) 수혜

청소년을 생각해요

2

엄마들과의 짧은 만남 뒤, 아이들이 올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오던 다인이 엄마의 발걸음이 마트로 향한다. 시간 날 때 밑반찬거리를 사다놓으면 좋겠다던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다.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하는 다인이 할머니는 오전 시간을 할애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월 20만 원씩을 받으신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용돈벌이를 하겠냐? 척척박사 옆동 할매는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건가 뭔가를 한다는데 나는 이게 재밌다" 하셨다. 다인 엄마 입장에서도 다인 할머니가 집에만 계시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다행이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 ▶ 3천여 명 대상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의 활동을 통해 활동비 지급

시니어 생활영어사업단
- ▶ 우수 노인인력의 전문화된 맞춤형 일자리 모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활영어지도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복지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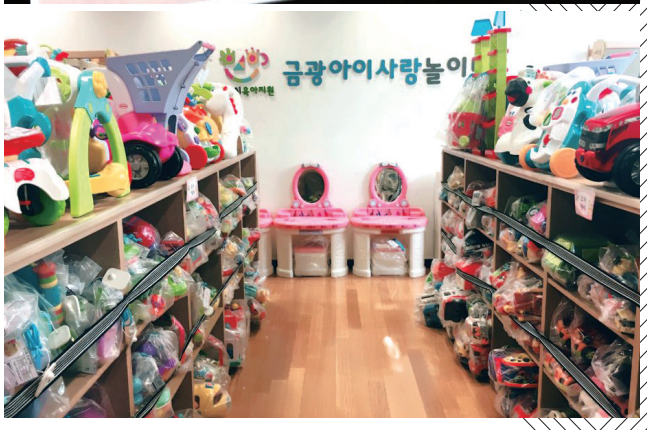
어르신을 행복해요

민선 6기 성남시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지났다.
성남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목표로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전면 실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민선 5기에 이어 전국 최초, 전국 최고의 타이틀을 달면서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민선 6기 주요 시정 성과(2017.10.31 기준)를 살펴본다. ※ 관련기사 2~9면

아이 키우기 좋아요

3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니 기민이가 벌써 와 있다. 간식을 챙겨 주는데 전화가 온다. 다인이 이모다. 오늘 오후 조리원을 보러 가려는데 세 살짜리 조카를 잠시만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첫째아이 옷도 친구들에게 받아 물려 입히고, 장남감도 알아봐 무상으로 대여해서 키우는 알뜰한 동생이다. 둘째를 가졌을 때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다인이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도 사설업체에서 돈을 주고 빌렸는데… 참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야.' 다인 엄마는 생각했다.



산후 조리비 지원

-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신고를 성남시에 한 가정. 출산 가구당 5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 2016년 6,753명, 2017년 5,637명(10월 말 기준) 지원

아이사랑놀이터

- ▶ 시청점을 비롯해 현재 12개소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그 중 7개소는 장난감도서관도 운영
-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보육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자유놀이실 월평균 1만6,643명)
- ▶ 장난감도서관은 1년 단위 회원제로 만 36개월 이하 대여

초등시기도 중요해요

4

낮에 사온 동태로 얼큰한 탕을 끓여 저녁을 먹고 뒷정리를 한다. 어느덧 열시가 넘었는데 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다인이 엄마가 씻으라고 채근한다. 보던 만화책을 놓기가 아쉬웠던 기민이가 투덜대며 욕실로 향한다. 자기 전 양치를 너무나 귀찮아하던 아들 녀석이 석 달 전 치과에 다녀온 뒤로는 따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제법 잘 닦는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

-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에 한해 치과 예방진료비 지원. 올해 72개 초등학교 8,526명으로 대상 확대(올해 10월 말 현재 7,990명이 참여, 93.7%의 높은 성공률 달성)
- ▶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구강위생검사 및 예방교육을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받을 수 있음

5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귀가가 늦은 남편이 조용히 들어온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특별한 건 없었지 모."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고 잠을 청한다. 특별할 것 없는 성남 주부 다인이 엄마네 가족의 특별한 일상이다.

※ 성남시민이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통해 구성해 봤습니다. 서동미 기자 ebu73@hanmail.net

성 남 시
WWW.SEONGNAM.GO.KR

건강하고 안전한 성남, 소통으로 만든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슈퍼그레잇한 공공의료 '시민 건강, 우리는 이렇게 지켜요'

시민의 건강 지키기에 시에서도 나섰다.
시민 각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해지는
시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8년부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

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상담과 교육

내년부터 수정구(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 9개 행정복지센터에 건강관리간호사를 배치해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위험·질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시가 지정한 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 상담·교육을 받는 건강상담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행복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지정받은 지역 내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을 말하며, 상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비용은 시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의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준공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정책사업의 핵심으로 본시가지 주민 숙원사업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음압격리병상, 응급의료센터, 대규모 재난대비시설 등을 갖춘 24개 진료과목, 513개 병상의 종합병원이다. 대규모 감염병 재난상황 시 성남시의료원이 중심이 돼 성남시–보건소–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성남

우리시의 하천인 탄천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둬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에도 관심을 기울여 치유를 돕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버들치가 사는 깨끗한 탄천… '1급수' 구간 발견

환경부 2017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성남시의 대표 하천인 탄천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수질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없던 2급수(BOD 2.0~3.0mg/ℓ) 구간이 2016년 6개 지점(총 10개 지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평균 2급수 구간이 6개 지점, 1급수 구간이 1개 지점으로 조사됐다.

탄천의 수질이 좋아지자 서식하는 물고기도 다양해졌다. 6월 29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10과 24종의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확인됐다. 깨끗한 물에 사는 모래무지, 버들치 등도 발견됐다.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탄천미래발전위원회가 2016년 9월 출범해 숨겨진 탄천의 가치를 되살리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탄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환경부 주최 '제9회 물환경 대상'(2016년)에서 우수상을, 생태하천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2016년 우수상, 2017년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성질환(아토피) 예방관리

아토피 치유숙소 5개 동, 아토피 가족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는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2015년 금산군과 협약을 맺고 성남시 아토피 중증자들의 자연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치유숙소 5개 동을 조성했다. 현재 아토피 가족 5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입주가족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분당차병원과 2015년부터 3년째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 전수조사, 정밀검진, 맞춤형 예방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숲에서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과 '아토피 생활환경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

3

말이 통하는 도시 "네, 성남시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는 소통도시 성남.
시민의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고(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은 시청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성남시청사 시민에게 개방
아이사랑 놀이터, 하늘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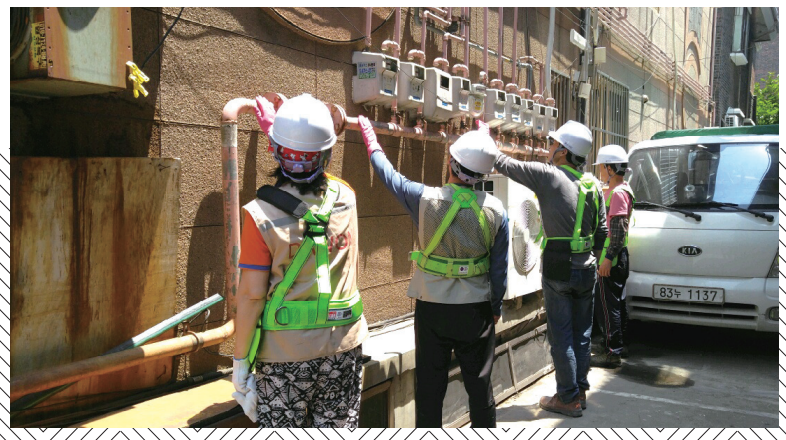
시민들이 시청에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2010년에 시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한 이후 시청사는 이제 100만 시민의 사랑방이 됐다. 하늘북카페(101만3,873명)와 체력단련실(41만8,542명), 회의실(1만8,222건, 289만1,023명), 공감갤러리 등에서 책을 읽고 운동하고 회의하고 전시를 본다. 시청 광장도 야외결혼식(39건) 장소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빛의 속도, SNS 민원응대
성남시 공식 트위터 '행복소통' 10만 팔로워 초과

'행복소통'은 성남시 최일선 현장에서 SNS 행정을 펼치는 성남시 SNS 시민소통관 146명과 함께 SNS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성남시는 부서별로 1명씩 SNS 시민소통관을 지정해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는 등 민원대응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있다. 이에 SNS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유저들로부터 광속행정이라는 애칭과 함께 칭찬을 받고 있다.

범죄예방 위해 특수형광물질 도포
연평균 24.5%의 침입범죄 감소효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만9,720개소의 주택 외부 가스배관 등 침입경로에 비가시성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과 현수막을 붙여 범죄 감소효과를 거뒀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요인이나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를 분석해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환경디자인을 곳곳에 적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한 곳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탄천 분당지역 1~5 지하보도,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가 밤길을 비추는 태평 2·4동 골목길, 가로등을 교체하고 마을 진입로를 갤러리로 조성한 중원구 광명로 134번길 일대 골목길 등이다.



범죄사각지대 없는 CCTV 확대
방범용 CCTV 3,098대 설치… 24시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360도 회전하는 고화질 방범용 CCTV를 범죄 취약지역에 올해 404대 추가해 모두 3,098대를 설치했다. 주택가 우범지역, 어린이·여성·노인보호구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CCTV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된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7명이 하루 3교대로 방범용 CCTV를 지켜 본다. 녹화된 영상은 증거로도 활용돼 최근 11개월 간 64건의 범죄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다.

4

안전하게 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조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나 혼자 조심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성남, 편안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알아보자.

5

통일을 위한 작은 씨앗, 남북교류협력사업

성남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10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4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이종적 전 통일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차근차근 장기적·발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16년 1월 개성공단 폐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UN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남북 간 교류는 거의 끊어진 상태다.
올해 성남시는 남북교류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문가 세미나를 5차례 개최해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3월에는 엄중한 안보위기를 인식하고 통일해 대해 생각해 보는 공직자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소재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판로 개척을 위해 7월 성남시에서 특별판매전을 개최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 경제교류는 남북의 장점을 각각 활용해 서로 윈윈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성남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남북 도시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단계에 걸친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했다.
오는 12월에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중 경제협력을 위한 한중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평화통일 공모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면서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갈 계획이다.

성남만의 교육·문화·스포츠, 당당하게 누려라!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성남시 백년을 내다보는 성남형교육

우리는 아이들이 미래에 꿈을 이루길 바라며 교육시킨다.
성남시는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남형교육으로 다양한 성장지원을 하고 있다.

1

학교만 다녔는데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출발 다양한 지원’ 성남형교육, BOOK극성, 학습준비물센터

성남시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설립,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학부모 동아리 활동, 교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학부모 아카데미, 학생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며, 학교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빛깔 있는 우리 학교’라는 학교특성화 프로그램(학교 규모별 900만~1,800만 원 지원)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교육과정에 접목시킨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슛돌이 성남(찾아가는 축구교실, 성남FC탐방), 꿈 찾는 성남(목공수업, 학교 문화예술교육), 안전한 성남(심폐소생술, 민주시민교육, 생존수영교실), 내 고장 성남(환경교육, 문화시설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BOOK극성’ 독서 프로그램은 사서·교과 교사 연수 등으로 독서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수업과 연계한 도서 지원, 학생·학부모·교사가 연계한 독서 동아리 지원 등으로 ‘책 읽는 도시 성남’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진로·진학 컨설팅, 논술·구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성남시만의 맞춤형 진학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빈교실 활용이 가능한 초등학교 48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4개교 초등학교에 56개소의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 운영, 학습에 필요한 물품 준비에 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기회와 부담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잘 먹어야 몸도 마음도 자란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2007년 초등 1학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2017년 사립유치원 80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6개교, 그리고 2016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5개 기관까지 확대 추진돼 총 203개교 8만2,947명에게 192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49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특수학교가 성남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일반농산물 구매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로 공급되는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올해 실시한 324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먹을거리 불안감을 해소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 덜어 줘요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액의 대학 학비 부담과 높은 청년실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동안 지역대학생 2만2,454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줬다.
또한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으로 자취학생들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2017년 2학기 지원대상자부터는 등록금 대출이자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자까지 확대 지원해 젊은 청춘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

생활체육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과학과 의학기술 발달로 장수 시대를 맞이했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분당 판교스포츠센터를 개장한 데 이어 올해 본시가지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개장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지난 5월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주차장, 수영장, 라켓볼장, 골프연습장, 실내 인공암벽장, 문화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시설 외에 숙소와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스포츠센터다.
시는 체육인의 정보교류 허브공간을 제공해 엘리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해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성남의 주인, 나라의 주인! 민주시민교육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행복 도시 만들어요

3

'알아야 면장(免牆)을 한다'는 말이 있다. 논어에서 유래한 말로 '면장(免牆)'은 담장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내가 배우고 알아야 커다란 담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항상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 지식의 중심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성남시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주권자인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조례 제정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경기도 최초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례 위주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성남 민주시민 강좌 '시민의 힘'을 총 10강에 걸쳐 연말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시민단체 대상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및 노인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100만 시민에게 더 가까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성남시에서 문화예술은 멀지도 높지도 않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4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파크콘서트, 연극 만원 등 '호평'

2012년 5월 첫선을 보인 '파크콘서트'는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즐기는 음악의 향연으로 시민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말 저녁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회다. 클래식 공연부터 오페라, 대중가요, 힙합콘서트 등 최상의 출연진과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53회 진행돼 38만 6천여 명이 관람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연극을 멀리 대학로까지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연극 만원' 시리즈도 '만원의 행복'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한 작품부터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까지 1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 공연마다 매진을 이어가며 2011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5만4천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다.

창작활동·문화 공간 더하다

공공예술창작소, '마왕' 신해철거리 조성

올해 7월 수정구 신흥동 주택가에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문을 열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예술 프로젝트팀이 입주해 2년간 개인 창작공간과 창작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개인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과 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정구 태평동에 두 번째 공공예술창작소를 조성 준비 중이다.

영원한 '마왕' 故 신해철을 추모하는 거리도 조성한다. 분당구 수내동 소재의 故 신해철이 사용하던 음악작업실과 그 주변거리를 활용해 조성되는 신해철거리는 2017년 5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160m의 보행자도로를 신해철거리로 조성해 상징게이트, 추모블록, 동상 및 추모가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해철거리 조성으로 성남시의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성남미디어센터, 세계악기전시관, 악기도서관 등

성남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은 성남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설립지원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문화공간이다. 다목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미디어 공방, 디지털 교육실, 미디어 갤러리, 미디어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미디어 강좌, 시민제작단 운영, 미디어페스티벌 등을 추진,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위치한,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창 '세계악기전시관'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리카·유럽, 남북아메리카의 3개 전시관과 1개의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49개국 197점의 다양한 세계 악기를 보유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2013년 11월 개관 이후 4,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세계 각국의 융합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전국 최초 악기도서관 '악기랑'도 있다. 시민들이 기부한 악기를 전문 악기사가 수리해 일반 시민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악기가 필요한 곳에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공간으로 시민이 만드는 나눔 공간이다. 올해 초 본격적으로 대여를 시작해 11월 현재 약 162건(299대)이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이 편안하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1

경제 놀이터·배움터, 어린이경제 벼룩시장 7년
"오늘은 내가 사장님이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실물경제를 체험하고 자원의 소중함과 나눔의 미덕을 함께 배우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해마다 두 차례씩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연례행사가 됐다.

'성남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에선 어린이가 사장이다. 어린이들이 판매자로 600여 팀의 가족 단위로 참여해 재활용 가능한 의류, 학용품, 책, 생활용품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을 직거래한다. 어린이가 판매할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홍보와 경쟁, 흥정을 하며 재미있게 시장 원리를 배운다. 판매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10% 이상은 기부하고, 팔고 남은 물품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 어려운 이웃도 돕는다.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은 2010년부터 매년 1~2회 열려 올해 13회째다. 성남시청 광장에 벼룩시장이 서는 날이면 1만3천여 명의 인파가 몰린다. 살거리, 배울 거리, 볼거리가 풍성해 매회 호응이 커서 어린이들의 경제 배움터이자 경제 놀이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2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최고 시급 받으니, 성남에 산다는 것이 자랑"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8,000원보다 1천 원이 오른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49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1만 원 단위로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 지원을 시행,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00원, 2017년 생활임금 시급 8,000원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

모란민속5일장, 27년 만에 새 장터로 이전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볏짚도 살 수 있을까요?

모란민속5일장은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소문난 수도권의 대표적인 5일장이다. 성남의 산 역사이자, 도시발전과 같이 해온 모란민속5일장이 장터를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다.

이전할 모란시장은 현 모란장 터 바로 옆인 중원구 성남동 4929번지 일대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용지다. 새 장터는 현재 장터보다 1만375㎡가 더 넓은 2만2575㎡ 규모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지원센터, 화장실, 공연장, 휴게 공간, 야간 조명탑, 장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전기 시설 등을 갖췄다. 평일에는 차량 600대 수용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장 날(끝자리 4·9일)에만 장터로 활용한다.

모란시장은 1964년 경기도 광주군 대원천변(현 성남대로 주변)에 난전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초기 이주자 김창숙 씨가 주민의 생필품 조달과 소득 증대를 위해 1964년 시장을 열면서 그의 고향인 평양 모란봉 이름을 따서 모란(牡丹)으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 장터는 1990년 9월부터 대원천 하류 복개지를 정비해 쓰고 있으며, 장날이면 최대 평균 유동인구가 평일장 4만2천 명, 주말장 9만2천 명으로 전국 최고다.

4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창조경제밸리 포진… 최첨단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국내외 유수 최첨단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외에 2015년부터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에 43만㎡ 규모로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18년 준공예정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성남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 육성에 가장 최적화된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받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난 9월 기업지원 허브센터가 완공돼 현재 5개 부처 11개 기관, 241개사가 입주 중이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1,400여 기업 입주)와 함께 글로벌 창업의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에서부터 소통과 교류가 집약되고,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혁신성장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막강한 글로벌 수준의 첨단산업단지 탄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남 시
WWW.SEONGNAM.GO.KR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고 자녀 양육과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를 바란다. 그런데 쉽지 않다. 성남시는 이 쉽지 않은 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꺼져가는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기업인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한 성남시의 '신의 한수'를 살펴보자.

5

상생을 통한 모란가축시장, 해묵은 숙제 해결

개고기 논란의 대명사였던 '모란가축시장'이 달라졌어요

성남시에는 모란민속5일장과 더불어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개시장이 있다. 살아있는 개뿐만 아니라 기타 가축도 함께 진열 및 도축해 판매하는 가축시장이 형성돼 유지돼 왔다. 하지만 모란지역의 발달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 불법 도축에 대한 불명예,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모란가축시장의 불법적인 행태를 개선하려는 숙제와 더불어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했다.

성남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경기도의 이동식 도축차량을 성남 모란가축시장에 최초로 제작, 배치해 가금류, 염소 등 도축의 합법화를 추진, 시의 14개 팀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구성된 환경정비T/F팀을 구성해 비가림시설, 지중화, 인도개설, 간판정비 등 모란가축시장 시설 현대화와 업종전환을 위한 교육, 자금알선, 종사자의 취업알선, 건물주와 협의해 임대료 인하(동결)유도 등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모란상인회는 환경정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2월엔 상인들이 개 보관·도살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과 상인들의 업종전환의 필요성 인식과 의지로 상생을 통해 모란가축시장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한 사례다.

한편, 성남시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성남시 홍보견으로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했으며, 공원과 놀이터에 반려견 놀이터 7곳 운영,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20곳 설치, 반려동물 페스티벌 연속 개최 등 동물과 사람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6

빚에서 빛으로!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 선포

불법사금융 척결·서민생활 보호 위한 대대적 단속 펼쳐

성남시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월 9일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구청 관계부서 직원,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고리사채업자 특별단속반'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리사채 집중단속 캠페인을 12회 실시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전단지 살포행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기획수사를 통한 검거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뿌려진 불법 고리사채 광고물을 수거해 광고전단지 배포 혐의자 66명, 불법 대부업 영업 혐의자 6명을 수사의뢰했으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07건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9월 26일부터는 불법 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을 면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데도 방법을 몰라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채무자 대변인이 돼 직접 찾아가 빚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7

'지역경제 효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가맹점이 많아서 이젠 쓰기에 불편 없어요"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다.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점포를 살리고,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액면금액의 6%(상시)를 인센티브로 할인 판매해 서민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특색사업이다.

2016년부터는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비 및 생활형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또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수당 및 기타 복지비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총액 약 562억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현재 성남시 내 7,710곳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서점, 음식점, 옷가게, 약국, 전통시장, 택시, 주차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탐방 11

인류건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탈헬스케어 그룹 '휴온스글로벌'

◀◀2020년 완공예정인 휴온스 아이스퀘어 신사옥
◀휴온스 해외전시 CPhI 2017

휴온스글로벌은 제약회사 휴온스가 2016년 5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다. 1965년 창업자인 고 윤명용 회장은 의약품의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적어도 약이 없어서 사람이 사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설립한 '광명약품공업사'가 휴온스제약이 되고, 다시 휴온스글로벌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8개의 계열사를 둔 토탈헬스케어 그룹으로 재탄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의약품 생산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휴온스, 천연물 허니부쉬로 웰빙 시장을 선도하는 휴온스내츄럴, 발효·사료·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바이오토피아, 생체고분자 응용사업이 주력인 휴메딕스, 소독제 사업을 하는 휴온스메디케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휴온랜드, 의료용기 사업을 하는 휴베나, 의료기기 사업이 핵심인 파나시 등 8개의 자회사가 있다.

휴온스글로벌이 있기까지

윤성태(53) 부회장은 창업자 윤명용 회장의 외아들로 60억 원 매출 회사를 20년 만에 2,500억 원으로 성장시키고 삼천만 불 수출탑을 달성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윤 부회장은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IBM사 개발부에 근무할 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가업을 잇게 됐다.

그 후 아버지가 타계하고 IMF와 공장화재 등 힘든 상황이 닥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휴온스글로벌을 탄생시켰다. 우연히 예멘에서 보관과 사용이 더 안전한 플라스틱 주사제를 보고 우리나라도 유리 주사제에서 플라스틱 주사제로 바꿔 보자고 착안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20억 원대 주사제 제조기의 수입 비용을 2억 원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 부회장은 "2020년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려면 아직 부족하다. 휴톡스를 발판으로 미국 수출 품목이 늘어나면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휴온스 그룹의 목표다. 의약품에서부터 미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 중인데, 각 회사 간 유기적인 관련이 높아 내년에는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포한 3·6·9 비전은 2025년까지 3개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6개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9개의 계열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에 213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휴온랜드는 1조4천억 원 중국 점안제 시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신약 개발은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점안제를 개발, 시판을 앞두고 있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휴톡스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비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2020년이 되면 휴온스글로벌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건축 중인 아이스퀘어 복합단지 내에 신사옥이 완공되면 흩어져 있는 계열사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회공헌과 인재상

사회공헌은 아동복지시설에 정기후원금과 장학회를 구성해 장학금을 전달했고,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수억 원의 의약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을 가족처럼 섬기는 가족친화 경영은 직원뿐 아니라 가족도 챙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족의 생일, 경조사에도 쿠폰과 선물이 배달되고 주중에는 오후 6시, 특히 금요일은 오후 5시 30분 퇴근을 적극 장려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배려한다. 이는 회사가 워킹과 라이프 간 조화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공개채용은 1년에 1회 11월에 있고 경력직을 위한 채용은 수시로 하고 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인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 이 세 가지가 휴온스글로벌의 인재상이다.

60년대 나라가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 한 개인이 설립한 작은 제약회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글로벌 헬스케어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 휴온스글로벌 안에는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녹아 있다.

휴온스글로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902호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제64기 정규과정_2018.1.22~6.1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등의 전문기술 교육, 수묵화 등의 사회문화 교육 등 모두 24개 과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여성 전용과목은 현대의상과 생활(고전)한복, 퀼트홈패션, 셀프스킨케어 & 자격증이다.

수강료 면제자 대상 우선모집은 12월 18~19일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수강료는 없으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수강료 면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다자녀가정(셋째가 만 12세 이하)이다.

일반모집은 12월 20일~내년 1월 5일 선착순 인터넷(www.seongnam.go.kr/woman) 접수한다. 수강료는 4만 원이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제1기 단과과정_2018.1.1~4.6

교육기간은 2018년 1월 1일~4월 6일 3개월간이며, 경락관리 등 28개 과정의 부업·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여성 전용과목은 현대의상, 네일아트, 에어로빅, 라인댄스, 경락관리, 퀼트홈패션이다.

수강료 면제자 대상 우선모집은 12월 11~12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수강료는 면제이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일반모집은 12월 13~29일 선착순 인터넷 접수한다. 수강료는 3만 원이며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031-729-2952~6
www.seongnam.go.kr/woman

취업교육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및 국비지원 사업

당신을 응원한 데이(DAY)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홈커밍데이에 구직자·취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정** : 11월 28일(화) 10:00~13:00
- **내용** :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특강 및 취업정보 제공
- **신청**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전화 문의 필수

- **참여대상** : 만 18세~69세 이하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 **진행과정** : 취업 관련 1:1 상담, 직업훈련,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 **신청장소**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 **참여수당** : 참여수당-최대 25만 원 훈련수당-28만4천 원 등 지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www.snw.or.kr, 031-718-6696

▲성남 단대 행복주택 준공식이 11월 17일 열려 참석 내빈들이 축하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 성남 단대동에 '첫선'

전국 최초 맞춤형 청년주택… 청년세대 주거문제 '희망'

오래된 단독주택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건립돼 11월 17일 첫선을 보였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4만9,265㎡) 내 164-11번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단대 행복주택 준공식'을 했다. 행복주택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결합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건립됐다.

성남시가 제공한 188㎡ 시유지에 LH가 최근 1년간 12억 원을 들여 16가구 규모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을 세웠다. 전용면적 16㎡(약 5평), 26㎡(약 8평) 각각 8가구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해 전용면적 16㎡ 가구는 월 임대료 10만9천 원(보증금 1,883만 원)이다. 전용면적 26㎡ 가구는 월 임대료 19만4천 원(보증금 3,340만 원)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14가구, 65세 이상에 2가구가 공급돼 11월 20일~12월 19일 입주한다. 앞서 진행된 입주자 모집 신청 때 130: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노년층은 최장 20년 이곳에 거주할 수 있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수정도서관, 대형유통점, 병원 등이 가깝다.

성남시는 또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하나로 단대 행복주택과 인접한 골목길, 쌈지공원, 놀이터, 전선 지중화 등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있다. 단대 행복주택건물 1층에는 단독주택 지역관리센터(39㎡)를 설치했다. '성남시 행복관리사무소 1호' 현판을 달고서 이곳 입주민과 인근 주택 120동(746가구) 관리사무소이자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한다.

이 지역 맞춤형 정비 사업을 위해 투입했거나 투입 중인 비용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LH의 행복주택 건설비(12억 원)를 포함해 시비 37억 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원 등 모두 81억 원이다.

성남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청년주택 건설·공급은 비교적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젊은이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거문제가 청년세대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숫자지만 청년들이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공급받게 됐다"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해 새로운 모델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031-729-4513

◀단대동에 위치한 행복주택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

12월 5일(화) 제3회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성남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는 12월 5일(화)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회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하며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대회는 총 11개 부문으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정식종목 8개 부문(게이트볼, 골프, 론볼, 볼링, 수영, 탁구, 골볼, 배드민턴)과 시범종목 3개 부문(플라잉디스크, 스태킹, 슐런)이며, 이벤트 경기로 태권도(격파왕), 농구(자유투)가 열릴 예정이다. 사전경기로 수영과 탁구는 11월 18일 한마음복지관에서 열렸으며, 배드민턴은 12월 3일 은행체육관에서 열린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 통합 개최해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 031-758-0715,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5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제도

Q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미성년자인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생전에 쓴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한정승인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씨는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인용을 받으면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에 대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돼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정승인은 민법에 정하는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청구기간이다.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여야 하고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상속인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상속재산 목록
- 재산·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들(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부채증명서 등)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

중앙공원에서 책 읽으며 힐링하세요

중앙공원 돌마각 숲속문고… 성남시서점협동조합 300여 권 책 기증

공원은 도시 속 오아시스라고 비유된다.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당구에 자리한 중앙공원은 숲을 끼고 있어 도시 속 오아시스로서 주민들의 휴식장소이자 힐링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공원 돌마각 2층에 숲속문고가 마련돼 책읽는 힐링의 문화공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성남시 공원과, 수내2동 주민센터는 중앙공원 숲속문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성남시서점협동조합 회원들은 이날 500여만 원 상당 300여 권의 새 책을 기증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책을 기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성남시에 살고 있는 조여일 작가의 즉석 책 기부도 이뤄졌다.

이매동 진흥서점이 최근 문을 닫을 정도로 동네 영세서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배 다음으로 마진율이 약한 게 도서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고 대형서점에 밀려 문화사업을 한다는 자긍심으로 20년 이상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서점주들도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성남시는 동네서점 살리기로 성남시가 관리하는 도서관들과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의 책 납품이 성남시 서점들을 통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동네 영세서점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해오름도서관(중앙동), 복정도서관, 서현도서관에도 성남 지역 서점이 도서납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서점협동조합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선미 이사는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시에서 받은 지원에 보답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앙공원 숲속문고에 도서기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엔 성남시 노인복지과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성남시에서 받은 혜택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남시서점협동조합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행사였다.

중앙공원 숲속문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이 정기적으로 매월 20권 정도를 기증해 책을 교환 비치하고 중앙공원 관리사무소(공원과)가 시설관리를 맡는다.

중앙공원 숲속문고에서 책을 읽으며 시민들이 또 다른 힐링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이 시도가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분실되는 책 없이 알차게 운영되길 기대해 본다.

도서기증문의 : 성남시서점협동조합 010-9075-3545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겨울, 레포츠로 즐겨요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눈썰매장 12월 16일 개장

성남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레포츠 시설이 12월 16일 개장해 내년 2월 11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성남시청에 야외스케이트장이, 성남종합운동장에는 눈썰매장이 문을 열며 이용료는 1천 원(스케이트, 안전모, 눈썰매 등 대여료 포함)이다. 기간 내 스케이트 강습도 진행된다. 시설이용객은 성남시청과 성남종합운동장에 무료로 2시간 주차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한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031-729-3054

■ 운영 시설 2017.12.16~2018.2.11(58일간)

구분	야외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장소	시청 내 프로그램 주차장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중원구 제일로 60)
개장식(예정)	2017. 12. 16(토) 11:00	2017. 12. 16(토) 14:00
운영시간	10:00~20:00(7회)	09:20~19:00(5회)
회차	1회차 : 10:00~11:00 2회차 : 11:30~12:30 3회차 : 13:00~14:00 4회차 : 14:30~15:30 5회차 : 16:00~17:00 6회차 : 17:30~18:30 7회차 : 19:00~20:00 ※정빙은 각 회차별 종료 후 30분간 진행	1회차 : 09:20~11:00 2회차 : 11:20~13:00 3회차 : 13:20~15:00 4회차 : 15:20~17:00 5회차 : 17:20~19:00 ※정설시간 20분 ※5회차는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운영
이용요금	1천 원(스케이트, 안전모, 눈썰매 등 대여료 포함)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눈썰매장

■ 스케이트 강습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8. 1. 1(월) ~ 2. 2(금)
- **운영장소** :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 **강습요금** : 1만 원(주 5일) ※스케이트장 이용료(1천 원) 별도
- **강습인원** : 회당 40명(빙상강사 교습)
- **강습대상** : 만 6세 이상
- **강습시간** : 매주 월~금요일 (1회 : 10:00~11:00 / 2회 : 11:30~12:30)
- **신청방법** : 탄천종합운동장 홈페이지(www.2ssc.or.kr)에서 2017. 12. 26(화) 07:00부터 선착순 접수

성 남 시
WWW.SEONGNAM.GO.KR

대한민국 최고 복지도시로 성장하다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 건전재정 이뤄

민선 6기, 성남시는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세금탈루 막아서’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3+1 원칙’을 세우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왔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세정운영으로 혁신을 이루고 건전재정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성장했다.

공평한 세금징수, 체납액 대폭 줄여

전국 최초 체납액 징수시스템 운영
사람 중심 따뜻한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성남시는 형평성·공정성을 기반으로 성남형 조세정책을 추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성남시 체납액은 2015년 2,145억 원에서 2017년(10.31 기준) 846억 원으로 1,299억 원(60.5%)이 대폭 감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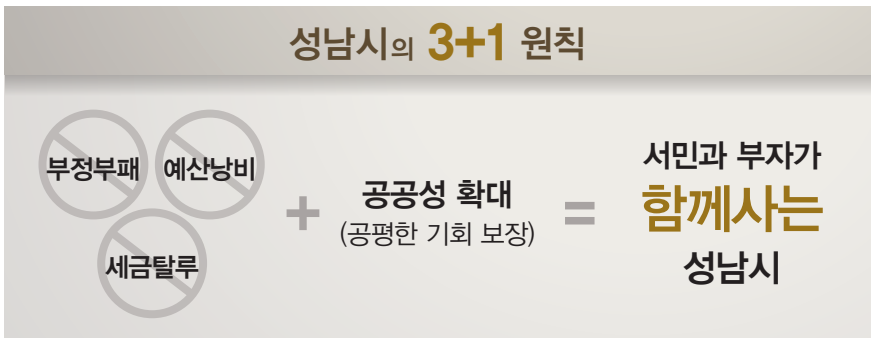
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모토 아래 생계형 체납자와 호화생활 고질 체납자의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추진하고 있다. 불경기, 취업난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주변환경을 감안, 새로운 세원 발굴보다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체납액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독려보다는 복지기관에 연계(148명)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11월 15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01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 각종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통합했다. 각 부서별 시스템을 하나로 엮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2017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저작권 등록 등 행정 선진화와 세금징수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들에게 납부한 세금의 사용 용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과 체납액 납부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징수기법으로 282명의 블라인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016년 대상에 이어 2017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재정 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2018년 채무 Zero 시대 연다

2010년 6,642억 원 → 2017년 현재 199억 원 →
2018년 채무 ‘제로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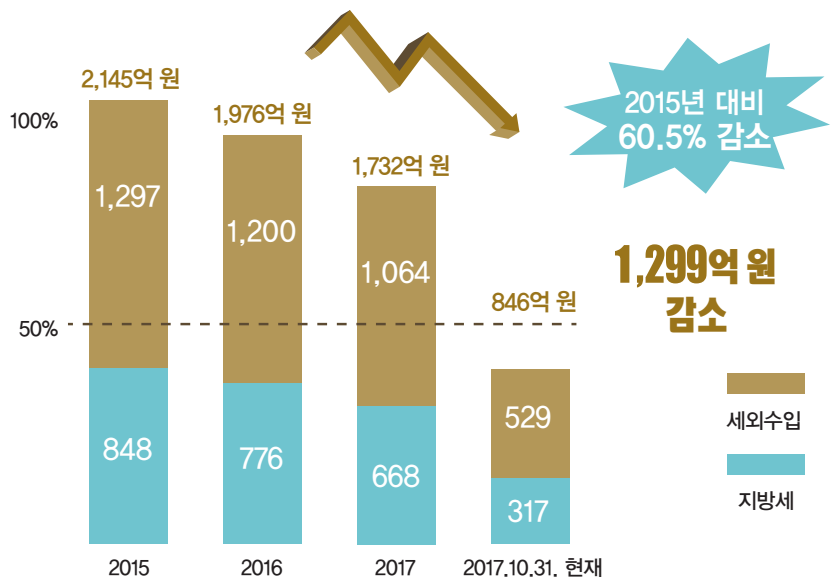
성남시 살림살이는 2017년 3조3,709억 원(2017년도 5회 추경 기준) 규모다. 재정자립도(2017년도 본예산 기준)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5위, 경기도 3위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취임 당시 6,642억 원의 채무가 2017년 현재 19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시는 2010년 취임 초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5,400억 원과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억 원 등 6,552억 원의 비공식 채무로 인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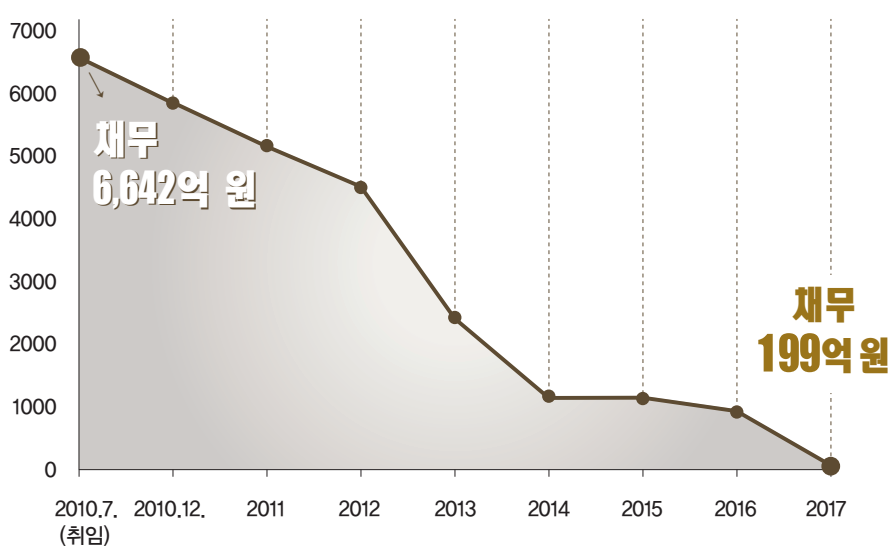
모라토리엄 선언 후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행정은 추진하되, 보도블록 교체 중단, 가로등 점등 줄이기, 폐현수막 활용 등 자원재활용, 시설공사 연기 등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행정을 펼쳤다.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 끝에 채무를 청산, 2013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현금 상환 등 채무를 갚아나가 2017년 현재 199억 원의 채무만 남게 됐다. 2018년 본예산이 성립되면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 ‘Zero’ 시대를 열게 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빚 없는 도시로서 채무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성남시 체납액 정리 현황



성남시 채무청산 현황(2017년 199억 원)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의 컨트롤타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복지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다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들의 디딤돌 역할을 자임하는 김의회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센터 직원들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관내의 취약지역을 매일 3번씩 순찰하면서 위기 노숙인을 찾아 상담과 센터 이용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과 편의시설을 제공해 거리 노숙인을 감소케 하고, 대상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과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운영되는지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임시주거지원입니다. 고시원과 연계해 당장 급한 잠자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제공되는 리스타트 자활사업단, 자활쉼터 연계, 지역 일자리 연계, 의료서비스, 물품지원, 긴급구호, 파산면책 프로그램, 노노케어, 자격증 취득, 인문학 프로그램, 산악회, 해마다 세계 홈리스월드컵에 대표선수가 출전하는 FC4전오기 축구단 등도 운영합니다. 미술치료도 진행하는데 12월 말에 시청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활 중인 노숙인들이 거리 노숙인을 이끌어 변화시키는 노노케어의 호응도 높습니다.

센터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디딤돌 역할이에요. 센터를 디디고 다시 사회로 나가야지요. 노숙인이 되면 너무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져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성공경험의 기회 자체가 없던 분들은 의지나 성취감도 빈약하고, 번창하던 일이 어려워진 분들은 마음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뭘 해볼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술이나 담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건강도 나빠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더럽고 게으르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노숙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본인들도 싫어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자존감을 떨어지게 해서 포괄적으로 '홈리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기본적 의식주 해결뿐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여기서 상담과 주거지원을 받아 식당에서 일하며 주경야독해 9급 교정직 공무원이 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자활사업단 반장님은 건강검진 중 위암을 발견하고 투병 끝에 완치해 꾸준히 저축도 하시고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031-751-1970,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어르신과 함께 도란도란 토닥토닥

찾아가는 말동무, 도란이방

2015년 4월 책읽기와 봉사를 좋아하는 시민 20여 명이 모여, 외로운 어르신들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고, 힘들었던 때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즐겁게 사시도록 돕고자 '어르신과 함께 도란이방(이하 도란이방)'을 설립했다.

도란이방 강사들은 성남시 관내 복지관과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 드린다. 생애주기별로 고른 그림책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불러온다. 어르신들은 그림을 보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즐거워하시고, 엄마가 빚어준 쑥개떡이 제일 맛있다며 그리움을 털어놓으신다.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면 "그때는 나도 그랬어.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지"라며 서로 위로하신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가난했던 시절, 그 가난은 혼자만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는 어르신은 그래도 그 남편 덕에 천사 같은 딸들을 얻었다고 하신다. 한 어르신은 정성스레 만든 팔찌를 복지관에 두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도란이방 강사들이 마나님 손목에 채워 드리라고 재차 설득하자 못 이기는 척 들고 가셨다. 다음 주에 나타난 어르신은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으셨다.

어르신들은 매주 한 번 도란이방 강사들을 만나면서 표정도 서서히 밝아지고, 자주 웃고 나중에는 수다쟁이가 되신다. 도란이방은 수다쟁이가 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바라며 장수 사진을 찍어드린다.

도란이방 강사들은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서 자서전으로 발간한다.

지난 추석 무렵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서전 발표회가 열렸다. 자서전을 꼭 안은 김정금 어르신은 "두서없이 말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 좋은 추억이 생겼어"라며 좋아하셨다. 도란이방 고정자 회장에게 소감을 물었다.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앞으로 도란이방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 드리고 싶어요." 옆에 영원히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자서전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었다. 기자도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내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정자 회장은 당부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리고 어린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크게 공감하고 칭찬을 많이 해 드리세요. 그럴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문의 : Daum 카페 '성남시실버행복나눔회'(도란이방)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성남시민 안전지킴이, 119 수호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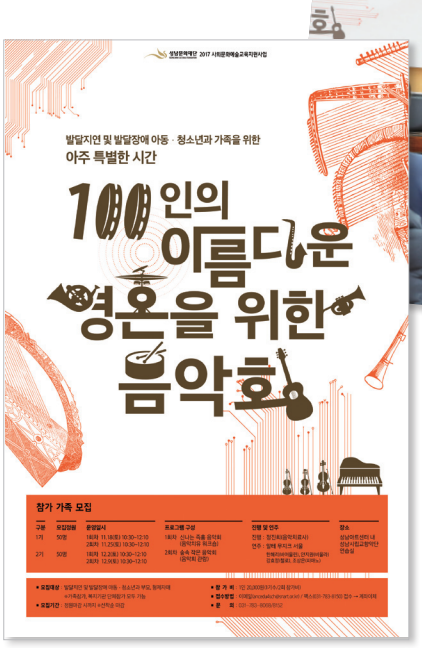
'국무총리 표창' 받은 강은옥 성남여성의용소방대장을 만나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포스터, 표어 문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에는 여성의용소방대원 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돼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1980년 6월 성남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50명)가 발대식을 갖고, 그 후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23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한 여성의 멋진 유니폼을 보고, 입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성남여성의용소방대(1995.5.1)였다는 강은옥 대장. 그동안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라는 의미 속에 부여된 책임감도 점점 더 생기게 됐고, 열정도 뜨거워졌다. 그렇게 대원에서 반장, 부장, 부대장을 지내면서 2016년 1월 27일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취임했다.
23년째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실시, 시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선 공로가 인정돼 제55회 경기소방의 날(11.9)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는 강은옥(성남동) 대장의 예쁜 마음과 환한 미소가 참 따뜻하고 순수함으로 다가왔다.
취임 후 지난해 7월 8일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자격을 갖춘 대원들로 구성한 성남시민의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금광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한산성 입구에서 등산목 지킴이활동, 야간순찰 화재예방활동, 불조심 캠페인,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긴급 복구의 소방도우미, 소년소녀가장,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해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하며, 성남시강사협의회에서 컴퓨터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금빛초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교육 때 "심폐소생술을 일찍 배웠더라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열심히 배우던 4학년 어린이의 모습이 기특하고 인상 깊었다"고 했다.
강은옥 대장을 두고 성남소방서 현장대응3단장은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내 이웃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은옥 대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100인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음악회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



성남문화재단이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체험 프로그램 〈100인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했다.
다양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일상 속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100인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음악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음악치료사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느껴 보는 체험수업과 전문 연주단 '알테 무지크 서울'의 연주회 관람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보다 가깝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11월 18일과 25일(1기), 12월 2일과 9일(2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수별 5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하며, 각 기수당 1회 〈신나는 즉흥 음악회〉, 2회 〈숲 속 작은 음악회〉로 진행된다.
〈신나는 즉흥 음악회〉는 정진희 음악심리치료사가 이끄는 음악치유 워크숍으로 '환영의 첫 인사', '우리는 ○○가족', '내 마음대로 연주하기', '우리도 오케스트라' 등 음악적 배경 없이도 함께 협력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 소통을 이끌고 그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숲 속 작은 음악회〉는 다양한 음역의 현악기와 화려한 피아노 연주로 고요하면서 정겨운 숲 속 동물들의 생활을 그릴 수 있는 1부와 2부 파헬벨의 '캐논',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등 우리에게 친근한 클래식 명곡으로 구성된 음악회 관람 프로그램이다.
문화사업부 주미영 차장은 "올 상반기에 진행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참여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이 음악회가 참가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이자 가족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잘 지속돼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라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이메일(ancedu4sch@snart.or.kr)이나 팩스(031-783-8150)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수별 50명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31-783-8068, 8152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2017 성남시의회 의정연수 성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및 예산심사 기법 등 특강 실시

성남시의회는 10월 31일~11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2017 성남시의회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내년도 국가차원의 주력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하고, 본예산 심사기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 및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둘러봤다. 특히 조직위와 의원들 모두 전국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성남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내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 성남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성남시의회

▲본예산 심사기법 강의 및 소통과 공감토론

그런가 하면, 주영진 입법고문을 초청해 '2018년 본예산 심사기법' 특강을 청취하고,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 원장 주도 하에 '쌍방향 소통과 공감토론'도 진행했다.

2시간 이상 이어진 긴 강의도 모든 의원과 직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최근 성남시의회가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서로 격의 없이 토론을 이어갔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이번 연수는 임시회를 끝마치고 곧바로 진행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넉넉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 계획되었던 모든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며 그에 따른 소기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 국가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쌍방향 토론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에게 늘 먼저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 역시 연수 마지막까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이번 경험을 고루 녹여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청소년 멘토 활동 활발

가을을 맞아 성남시 청소년들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 최근에는 가을 소풍과 운동회를 비롯해 자유학기제나 현장체험 같은 독특한 활동도 많아져 눈길을 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청소년들과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포럼을 비롯해, 매일 견학을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견학 코스의 경우, 관내는 물론 지방 각 도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4일에는 오산시에서 '꿈꾸는 진로기자단' 학생들이 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특강을 청취했다.

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은 청소년 자립문화 공간을 찾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살펴보는 등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회는 청소년 관련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청소년 자립문화 공간 개소식에 참석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 멘토를 자처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탱화성 대표단, 성남시의회 방문

선진 의정활동 사례 청취 및 논의 이어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은 탱화성 대표단(왼쪽)과 성남시의회 홍보관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탱화성 대표단(오른쪽)

성남시와 국제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베트남 탱화성의 도 민 뚜안(Do Minh Tuan) 부서기장 등 대표단 27명이 11월 8일 오후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간담회 및 홍보관, 본회의장 등 청사견학을 주도하며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맞이했다.

김유석 의장은 "양 도시 간 우호와 협력을 통해 기업체 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서로 돕고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 민 뚜안 탱화성 부서기장은 "이렇게 발전된 성남시의 모습은 지역을 위해 애쓰는 시의원들의 활동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고 화답했다.

특히 베트남 대표단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청취하며 "주목할 만한 선진사례가 많다. 정해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돌아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가 25주년을 맞는 해라 그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탱화성 대표단의 성남 방문은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베트남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성남시청과 시의회, 한국잡월드, 판교테크노밸리 등 관내 시설을 견학한 뒤 9일 출국했다.

각 상임위, 비회기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

청사 내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돋보여

▲하대원시장 현장방문을 실시한 경제환경위원회(왼쪽)와 관계 공무원들과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오른쪽)

연말을 앞두고 성남시의회는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회기를 앞두고 의회 청사 내외로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그야말로 장소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속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연달아 실시해 관내 상권을 살펴왔다. 위원들은 모란시장 이전 장소와 하대원시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공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했다. 11월 9일에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청사 내에서 토론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회기 전후로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11월 23일에는 '인구정책'을 주제로 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은 시기와 장소를 떠나 늘 민생을 살피고 유동적인 사항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연말에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린 시의회

방청 안내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031-729-2523~5

견학 안내

의회 견학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031-729-2545

시설 사용 신청 안내

우리 시의회는 의회청사를 시민 여러분께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31-729-2524

청원 안내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031-729-2532~7

진정 안내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031-729-2532~7

건강칼럼

겨울철 피부 건조증 예방과 관리

구정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갑자기 돌변한 겨울 날씨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은 피부에 더 많은 보습을 필요로 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안에서는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가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메마르게 한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으로 피부 건조증이 있다. 그동안 부드러움을 유지하던 피부가 건조한 겨울이 되면 가려워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각질이 피부에 남아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긁어서 생긴 딱지, 각질, 홍반 등의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극도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튼 것처럼 갈라지기도 하는 건성 습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피부 증상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피부 건조증은 주로 40~50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 요즘은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실내 환경, 전기담요 사용, 잘못된 목욕 습관 및 잦은 목욕 등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노화될수록 자연 보습인자의 부족, 표피 지질의 이상 등으로 각질층의 수분 보유능력이 저하되고 피부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러한 증상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호전됐다가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을 되풀이하게 된다.

건조한 상태의 피부는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피부 신경이 쉽게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주로 피지 분비가 적은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나 팔 부위와 복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퍼져 온몸을 심하게 긁게 된다.

또한 드물게 갑상선 질환, 당뇨, 만성 신부전, 빈혈, 대사성 질환,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의 질환에서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보습제 등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 속 피부 건조증 예방·관리 노력

피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피부장벽 기능인데, 이를 손상시킬 때 가려움증, 각질, 홍반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피부장벽 기능을 파괴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으면 상당 부분의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사소한 습관, 즉 잦은 목욕이나 온천, 사우나, 찜질방 사용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목욕 시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때를 미는 행위 등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의 보습, 면역,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목욕은 하루 1회 이하, 10분 이내의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샤워나 세안 직후에 기능성 보습제를 발라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해 줘야 한다. 헤어드라이어나 난방기의 뜨거운 바람은 피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도 필요하다. 실내온도는 18~21℃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습기 사용이나 빨래를 널어 40~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꽉 끼거나 조이는 옷은 피하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면 소재의 옷을 권장하며, 전기장판 등의 난방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음주나 카페인의 섭취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부 건조증이 호전되지 않고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겨울철의 건강과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을 변화시켜 좋은 피부를 유지하며 더욱더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건강교실

30분 순환운동교실

- **운영방법** : 1기 70명 모집(연간 4기 운영)
- **신청방법** :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 신청
  - 신규자 : 12.26(화)~12.27(수)
  - 기존등록자 : 12.28(목)~12.29(금)
- **일정** : 오전(월·수·금) 9:30 / 10:15 / 11:00
  오후(월·수·금) 16:00 / 16:45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031-729-4244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안내

-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문제음주자
- **신청방법** : 전화 문의(전화상담 후 방문)
- **구분** : 남성재활 – 매주 월·수·금 10:00~16:00
  여성재활 – 매주 목요일 10:00~16:00
  가족지원 – 매주 수요일 13:30~16:00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31-751-2768~9

건강한 백세 인생, 미리 준비하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 연령 및 검진주기

구분	그룹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만성 간질환 환자)	1/2년 간격 (상·하반기)

※국가 암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만 2년 내에 해당 암을 진단 받을 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016년 11월 건강보험료에 따라 선정됨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만 원 기준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만7천 원 기준

수정구보건소 031-729-3862
중원구보건소 031-729-3922
분당구보건소 031-729-3982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

- **노로바이러스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물, 환자의 침과 손, 분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존재하며, 소량(10개)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 **감염 예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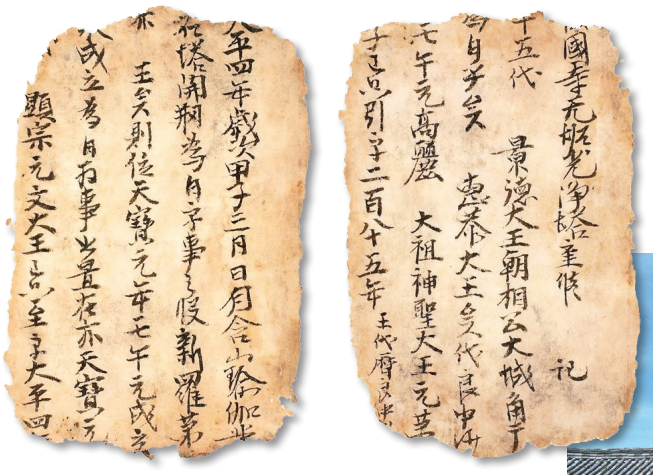
– 비누를 사용해 30초 손 씻기
–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생식을 삼가고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기
– 물 끓여 마시기
–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하기
– 주변 환경 청결히 하기

수정구보건소 031-729-3862
중원구보건소 031-729-3922
분당구보건소 031-729-3982

장서각 산책

전통시대 지진의 생생한 기록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발굴된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중 일부

▼불국사 석가탑

1966년, 도굴 피해를 본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하면서 시루떡처럼 뒤엉킨 종이뭉치가 발견됐다. 이 종이뭉치를 하나하나 해체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 초기인 1024년과 1038년에 각각 석가탑, 혹은 다보탑을 고쳐 쌓고 그 내력을 기록한 문서였다. 이로써 석가탑과 다보탑은 신라 경덕왕 때 처음 쌓은 이래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는 신화가 붕괴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석가탑이 경주 일대를 엄습한 지진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대대적으로 수리됐다는 사실이었다. 이 문서에서는 '지동(地動)'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땅이 흔들린다는 지동, 바로 지진(地震)이다.

석가탑이 지진으로 붕괴할 무렵, 한반도는 지진 다발 지역이었다. 특히 경주가 심했다. 제주 한라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현종 10년(1007)의 기록을 보면 이때 광경을 현지인 증언 형태로 채록했는데, "산이 처음 솟아나올 때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하고 땅이 움직여 우레 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무릇 7일 낮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산은 높이가 100여 장(丈)이나 되고 둘레는 40여 리(里)가 되며, 풀과 나무는 없고 연기가 산 위를 덮으니 이를 바라보면 석류황(石硫黃)과 같아 사람들이 두려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적었다.

신라시대에도 경주 부근은 지진 다발 지역이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태종무열왕 4년(657) 7월, 경주 동쪽 토함산 땅이 불타더니 3년 만에 꺼지고 흥륜사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고 썼다. 땅이 불탔다는 것으로 보아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동반됐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 토함산 일대에서는 이렇다 할 화산 분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혜공왕 2년(766) 2월에는 지금의 진주인 강주(康州)에서 땅이 함몰해 연못으로 변했는데, 그 넓이가 50여 척이고 물빛이 검푸른 색이었다. 13년 후에는 수도에 지진이 나서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에 달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경주에 큰 지진이 오기 석 달 전,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동해 앞바다의 지진 소식을 접한 국립경주박물관은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 모든 전시품을 묶어 두는 것이었다. 부처님도 끈으로 꽁꽁 묶는가 하면, 세워서 보여주던 토기들은 누이고 모래로 채운 후 다시 묶었다. 석 달여가 흐른 9월 12일, 경주를 진앙으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전국을 흔들었다. 규모 5.8의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그 피해 역시 막대했다. 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 유물은 단 한 점도 손상이 없었다.

최근 경주 부근 포항에서 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적지 않은 상흔을 남겼다. 급기야 수능까지 1주일 미루게 했다. 자연의 위력이 새삼 두렵다. 한반도에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는 것 또한 조상들의 지혜에 담겨 있을 것이다.

■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소비자 Q&A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복류, 반품기한은?

Q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해 배송 받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개봉해 확인했더니 컴퓨터로 볼 때와는 달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곧바로 물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판매사는 물품이 7일 이후에 도착했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의복류를 구입 후 사정이 생겨 반품할 때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품기한은 도착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품을 반송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7일 이내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슬픈 질문

새끼주머니에 늙은 아비어미를
넣고 다니는 캥거루를 본 적 있나요?

없겠지요.
없겠지요.

사람과 동물, 참 많이 닮았네요.

정철 | 카피라이터. 정철카피 대표.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 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꼰대 김철수〉 등의 책을 썼다.

명사 초청 강연 2017년 12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회차	일정	강의주제	강사	강사약력	주요활동
19강	12.7(목) 10:00~11:30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	이홍렬	방송인 (개그맨)	〈주요경력〉 MBC 일요일 밤의 대행진 SBS 이홍렬쇼 등 〈저서〉 이홍렬의 즐겁게 사는 이야기(2014) 외 다수 〈상훈〉 MBC방송연기상 최우수상(1993) 대통령 표창(2014)
20강	12.21(목) 19:30~21:00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조윤범	음악가	〈주요경력〉 서울 필하모니 정 단원 페이지무비 편집장 인터넷 영화잡지 플레이어 창간 〈저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1·2, 나는 왜 감동하는가 〈음반〉 샤콘느(2005), 히스토리(2007)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인원** : 선착순 600여 명
- **장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 **문의** :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판교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문화나눔교육] 문화가 있는 날, 문화 득템 - 청화백자 공방

- **교육주제** : 도자 이론 학습 및 청화백자 공예(문양 그리기) 체험
- **교육과정** : 이론 학습 → 전시실 관람 → 체험활동
- **교육일시** : 12.27(수) 15:00~16:30
- **교육대상** : 성남시민 20명
- **교육장소** : 판교박물관 교육실
- **교육비** : 7천 원(접시, 유약소성)
- **교육확정** : 교육 전 개별 안내(유선 또는 문자)
- **접수기간** : 12.4(월) 10:00시부터 선착순 전화 접수

판교박물관 www.pangyomuseum.go.kr, 031-729-4536

판교환경생태학습원 12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수·목·금 10:00~10:50 11:10~12:0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다양한 주제의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금 11:00~11:50	5~7세 단체	구연동화,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을 배우는 단체프로그램
어린이 에코공방	화요일 15:30~17:00	8~13세 어린이	다양한 재활용 재료와 자연물로 창작물 리폼을 통해 소품을 만들며 창의적인 흥미를 키우는 에코창작 프로그램
자연관찰학교	목요일 15:30~17:00	8~11세 어린이	자연의 변화를 관찰, 기록하며 생태를 체험하는 정기모니터링 프로그램(2개월 정기참여)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짝꿍	어린이가 보호자와 짝을 이루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
새친구동고비	토요일 10:00~12:00	7세 이상 가족	우리지역의 조류탐사체험을 하며 새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가족 프로그램
가족생태교실	토요일 10:30~12:00 ※ 12월 2일만 14:30~16:00 진행	5세 이상 가족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겨요 계절을 주제로 관찰 및 체험이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
가족에코스쿨	일요일 10:00~12:00	8세 이상 가족	환경과 관련된 재미나고 소중한 가족체험프로그램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전화접수 불가) /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특별프로그램 등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맹산환경생태학습원 MaengSan Eco Center 2017년 12월 ~ 2018년 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업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월~금 오전·오후	유아(5~7세)	12월 – 식물들의 겨울나기 1월 – 숲 속 동물들의 겨울
에코 키즈 B		초등단체	
맹산 숲속 이야기	토 오전·오후	유아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초등가족	
함께하는 자연	별도 협의	장애인	단체 별 주제에 따라 진행
2018년 에코패밀리 모여라!	1.3(수)~1.5(금)	초등가족	환경 실천 선언, 자원재활용 만들기, 사행시, 환경 림보, 친환경놀이, 환경 퀴즈 등
전시 체험실	수시	전체	민물고기수족관, 탁본체험, 나무놀이터 등
자원순환&나눔센터	수시	전체	안경테, 생활용품, 문구류 등 기부 및 물물교환
자원봉사활동	별도 공지	개인·단체	도슨트, 환경 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방학특강

프로그램	수업일정	대상	내용
유아환경교실1	1.11(목)	유아가족 (5~7세)	다양한 환경이야기를 주제로 한 동극 인형극 및 오감 체험놀이
유아환경교실2	1.18(목)		
유아환경교실3	1.25(목)		
자원순환교실	1.8(월)~1.12(금)	초등가족	Re-cycling & Up-cycling, 종이 만들기
에너지 교실	1.15(월)~1.19(금)		재생에너지 탐구, 에너지 팔찌 만들기
생물다양성교실	1.22(월)~1.26(금)		멸종위기 생물 탐구, 생물도감 만들기
에코베케이션	1월(화·목)	중·고등학생	자원순환, 에너지, 생물다양성 탐구 및 환경 봉사활동

※참여방법 :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별 준비물은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바야흐로 청소년 시대!!

청소년재단,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수정 청소년수련관	통고구마축제	12.5(화) 09:00~12: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성남시 고3 수험생	•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댄스, 치어리딩 등) • 성남시장 진로강연 • 문화예술 전문 초청공연(비보이, 태권퍼포먼스 등) • 수험생 응원영상 및 경품 이벤트	–	031-729-9233
중원 청소년수련관	작은나눔 큰행복 「몰래산타 대작전」	12.21(목) 17:00~22:00	수련관 및 수혜가정	산타 자원봉사자 및 수혜아동·청소년	• 출정식 : 격려사, 출정 구호 등 • 산타출동 : 수혜가정 방문을 통한 이벤트 진행 및 선물, 케이크 전달	홈페이지 참조	031-729-9333
	2018 청소년 자치기구 모집	2017년 12월~ 2018년 1월	수련관	중·고·대학생	• 청소년운영위원회 「은가비」, 청소년미디어단 「다옴」 • 청소년자원봉사단 「온새미로」, 대학생기획단 「베리타스」 • 대학생진로멘토단 「꿈나르샤」, 청소년동아리연합 「아라」	홈페이지 참조	031-729-9337
서현 청소년수련관	미리 해피뉴이어	12.30(토) 12:00~17:00	수련관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청소년 자치기구 체험 부스 운영 • 청소년 동아리 공연	사전접수 (홈페이지 공지)	031-729-9436
	청소년 문화놀이터	연중	수련관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을 위한 포켓볼, 탁구시설 일일이용(이용료 1천 원) • 청소년 생일잔치, 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공간 무료 제공	상시접수·전화문의	031-729-9454
정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연합축제	12.16(토) 17:00~20:00	수련관 4층 공연장	청소년 동아리 및 지역주민	• 수련관 소속 댄스, 밴드, 뮤지컬 동아리 기획 공연 개최 • 2017년 활동에 대한 연말 성과발표의 장 마련	–	031-729-9535
	따뜻한 겨울 만들기	12.23(토)	수련관 및 인근지역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가정, 국가유공자가정 200가구	• 지역 내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가정 대상 만두 나눔 활동 • 청소년이 직접 만두를 만들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가정 방문 전달 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착순 일부모집	전화접수	031-729-9538
판교 청소년수련관	수험생축제 '홀가분'	12월 중	분당 수련관	중3·고3	• 입시를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및 전문가 특강 등을 운영하여 입시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졸업 이후 미래 설계를 위한 자기탐색의 기회제공	–	031-729-9638
	지역생태기관연계 "함께 성장하기" 환경포럼	12.2(토) 10:00	수련관 1층 공연장	그린네트워크 참여 동아리 외	• 수련관 내·외에서 청소년들이 생태환경에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활동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제공	–	031-729-9645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단원 모집	12.19(토)~12.31(일)	문화의집 강의실	중1~ 만 24세 이하 청소년	• 문화의 집에 소속되어 연중으로 정기 기획활동을 할 청소년 모집 • 다양한 동아리 모집 중(개별 유선 문의) • 청소년운영위원회, 미술봉사단, 유스패트롤, 미디어단, 공연동아리(댄스·보컬·밴드 등), 비공연동아리(네일아트·학술 등) 등	전화 문의	031-729-981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운영	연중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등	• 종합심리검사(지능, 성격 등), 지능검사, MMPI, MBTI, 진로적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진행 ※비용은 홈페이지 참조	상시접수	031-756-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	• 전문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지원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인턴십 및 진로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멘토 모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031-729-9170~6

탄천의 예술길 '이매 아트로드'

일상을 빛나게 하는 공공예술, 알투스통합예술연구소 추진

가을의 탄천을 산책하다 보면 모자이크 타일화가 나타난다. 이매동을 상징하는 매화와 탄천의 각종 동식물이 올라앉은 타일화를 감상한 뒤 오페라 동굴을 통과하면 성남아트센터가 보인다.

알투스통합예술연구소(ALTUS)의 '이매 아트로드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매1지하보도를 '탄천'이라는 자연 공간과 '성남아트센터'라는 예술 공간을 연결하는 아트로드, 즉 예술의 길로 설정한 프로젝트다.

성남문화재단의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은 이매1동 주민센터와 데오스중고등학교, 효애랑 공방이 참여해 지난 7월 시작해 10월 29일 완공했다. 이매1지하보도 입구를 장식하는 모자이크 타일화 제작에는 데오스중고등학교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하보도 입구를 꾸민 타일화는 탄천의 동식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총 100kg의 흙을 사용해 도자타일로 만들었다.

최시은(데오스고 1) 양은 "친구들과 도자기를 디자인하고 직접 굽고 색칠한 시간이 즐거웠어요. 시민들이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요"라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모자이크 타일화로 입구가 장식된 이매1지하보도를 들어서면 시간에 따라 '오페라 동굴'을 체험할 수 있다. 매 정시마다 한 곡의 오페라 아리아와 빛나는 조명이 켜지는 오페라 동굴로 변신한다.

오페라 아리아는 각 시간대별로 서로 다르게 선곡돼 총 24곡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한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조명이 소등되고 환상적인 LED조명이 점등된다.

알투스통합예술연구소(ALTUS)의 이계원 작가 겸 기획자는 "이매1지하보도는 놀이터와 아파트, 탄천으로 에워싸인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이다. 예술은 일상과 분리돼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소하고 잔잔한 예술적 자극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다 다채롭게 한다"면서 "이매 아트로드 프로젝트로 작지만 빛나는, 완성도 높은 작업으로 공공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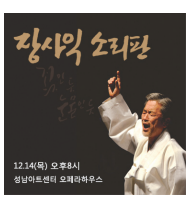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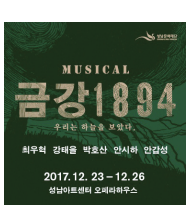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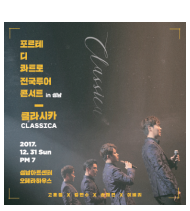
신정혜(데오스고)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작업한 것이 공공시설물로 전시됐다는 점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디자인 재능도 발견할 수 있어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탄천을 지날 때 만나는 이매1지하보도 '오페라 동굴'에서 화려한 샹들리에와 어우러진 인생샷 한 컷 남겨보길 추천한다. 입구에 장식된 도자타일의 디자인을 눈여겨 보는 것도 잊지 말자.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이달의 공연·전시

12 201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전 무 성남의얼굴展 〈성남을걷다〉 일시 : 12.8(금)~2018.1.28.(일) 10:00~18:00(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1-9	전 무 소장품주제기획展 〈BREATH〉 일시 : ~12.24(일) 10:00~18:00(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문의 : 031-783-8141~9	전 무 성남청년작가展4 〈최경아: 산책자 FLÂNEUR〉 일시 : 11.10(금)~12.24(일) 10:00~18:00(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1~9	전 무 작은 그림展 〈LESSMORE〉 일시 : ~12.24(일) 10:00~18:00(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1~9		2 2017 THE 최현우 〈ASK? & ANSWER!〉 일시 : 12.2(토)~12.3(일) 토 15:00, 19:00, 일 13:00, 17: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7만7천 원 S석 5만5천 원 문의 : 031-258-9053
			6 조수미콘서트 – WINTER FANTASY 일시 : 12.6(수)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12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문의 : 031-783-8000	7 임동혁 & 모딜리아니 콰르텟 – 성남 일시 : 12.7(목)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 1577-5266	8 나와 할아버지 – 2017 시리즈 연극 만원(滿員) 일시 : 12.8(금)~12.10(일) 금 16:00, 20:00 토·일 14:00, 17: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1만 원 문의 : 031-783-8000	9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3 〈우당탕탕 집짓기 대작전〉 일시 : 12.9(토)~12.10(일) 토 11:00, 14:00, 16:30 일 11:00, 14: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5만5천 원, S석 4만5천 원 문의 : 031-258-9053
	11			14 장사익 소리판 〈꽃인 듯 눈물인 듯〉 일시 : 12.14(목)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문의 : 서울예술기획 02-548-4480	15 성남시립교향악단 149회 정기연주회 일시 : 12.15(금), 20: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16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일시 : 12.16(토) 19: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VIP석 8만8천 원 R석 7만7천 원, S석 5만5천 원 A석 3만3천 원 문의 : 02-597-9870
2017 "윤종신 좋니?" 전국투어 콘서트 – 성남 일시 : 12.16(토) 18: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12만1천 원, S석 11만 원 A석 8만8천 원 문의 : 1544-9857			2017 마티네 콘서트 – 브람스,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12월) 일시 : 12.21(목) 11: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전석 2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21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일시 : 12.21(목) 20: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문의 : 031-783-8000	크리스마스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일시 : 12.21(목)~12.25(월) 목, 금 16:00, 19:30 토~월 14:00, 17: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3만 원 문의 : 031-783-8000	23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랑 송년 콘서트오페라 〈라보엠〉 일시 : 12.23(토)~12.24(일) 토 16:00, 일 17: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4만7천 원, S석 3만7천 원 A석 2만7천 원 문의 : 문화뱅크 02-2232-1148
24 뮤지컬 〈금강, 1894〉 일시 : 12.23(토)~12.26(화) 토 19:00 일·월 14:00, 화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9만9천 원 R석 7만7천 원, S석 5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26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클라시카〉 IN 성남 일시 : 12.31(일) 19: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11만 원, S석 8만8천 원 A석 6만6천 원 문의 : 031-783-8000	30 / 31 2017 성남아트센터 제야음악회 일시 : 12.31(일) 22: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전석 2만 원 문의 : 031-783-8000

전 : 전시 영 : 영화 무 : 무료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반달갤러리, 갤러리 808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essay

성남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이유

김옥임 | 분당구 정자동

올해 69세가 되는 나의 친정 엄마. 외향적인 아버지와 달리 가정에서 평생 집안일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신 분이다.
작년 초 "어머니께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해 봤다. 그러다 문득 성남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한지공예 전시회를 보신 후 관심을 가지시던 모습이 떠올라 학원에 등록시켜 드렸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잔손질이 많이 가는 한지공예는 겉으로 쉬워 보이지만 작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무척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배우시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드셨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재미있어 하시고 한 작품 한 작품 늘어갈 때마다 정말 뿌듯해 하신다.
어머니는 곧 한지공예 자격증을 따서 누군가를 가르칠 계획도 갖고 계시다. 또한 만든 한지공예품을 전시해 놓고 친구들과 가족을 불러 전시회도 열고 싶어 하신다. 덕분에 내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당신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드리는 일과, 전시회를 한번 열어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보시던 아버지 역시 이젠 뭔가의 취미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 추석에 친정에 간 길에 여쭤 봤더니 "늙은이가 뭘 하냐"라면서도 은근히 목공예를 하시고 싶다 하셨다. 원래 뚝딱뚝딱 뭔가를 잘 만드시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 학창시절 공작시간에 가져갈 물건들을 잘 만들어 주시곤 했다.
아버지를 위해 부랴부랴 여기저기 귀동냥을 해 보니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에 목공예 강좌가 있을 거라 해서 알아보는 중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민간 시설까지 성남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 시민들의 학습동아리 모임도 지원해 주고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게 잘만 되면 시민들은 누구라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강좌가 있어서 쉽게 듣고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는 벌써부터 설레 하신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덕분에 노년이 남아서 버리는 여생(餘生)이 아닌, 하루하루 행복한 노년이 될 것이다. 성남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이유다.

친구의 입양과 성남시의 고마운 복지정책

권희숙 | 분당구 백현동

친한 여고 동창들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들이 "와~ 어머머, 예쁘다. 그치?" 하는 탄성까지 내며 한 친구의 휴대폰 화면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친구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애를 낳기엔 우리의 '연식'이 꽤 된 적잖은 나이여서 모두들 "어머머, 늦둥이를 봤구나, 얘?" 하며 농담을 건네자 사정을 아는 친구가 "이 아이, 가슴으로 낳은 거래"라고 말해 준다.
그랬구나! 입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탄사를 쏟으며 "정말 축하한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멋지다"를 연발했다. 그러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옆자리의 다른 친구가 손뼉을 치며 "잘됐다, 좋은 소식이 있어"라며 반가워했다.
우리 성남시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내년부터는 축하금 500만 원을 준단다. 장애아는 700만 원이고. 물론 돈 때문에 입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시에서 복지차원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건 정말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다.
친구는 입양한 친구에게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것까지 일러줬다.
언젠가 이재명 시장님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시의 살림을 잘 꾸려서 빚도 갚고, 아낀 재원을 시민들의 복지에 쓰는 게 가장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정말 진정한 복지는 이런 거구나 싶었다.
입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이렇게 코앞에서, 그것도 내 여고 동창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참 존경스러웠다.
제2의 좋은 가족과 부모를 만나는 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하며 박수를 드리고, 더구나 시에서는 많은 축하금까지 지원한다니 우리 성남이 참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분 좋은 하루였다.

photo

최지원 | 중원구 성남동

가을의 끝자락

잔잔한 물 위로 붉게 번지는 만추의 풍경…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본다.

김대령 | 수정구 수진동

서울공항 에어쇼

지난 10월 서울공항에서 펼쳐진 에어쇼를 보고 왔어요. 보고 있노라면 입이 절로 벌어지고, 비행기가 날아간 궤적은 파란 하늘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 멋진 장관을 연출하네요.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A4 1/2장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17년 12월 7일(목)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모집

- **모집대상** :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2017.1.1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http://www.sneducare.or.kr/echild/)
- **회원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제 (1가정 당, 1지점만 선택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
- **이용기간** :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

차시	11차
신청기간	11.29(수)~12.12(화)
추첨일	12.19(화)
등록기간	12.22(금)~12.30(토)
대여시작일	2018.1.2(화)
지점명	금광지점, 250명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5번)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상담내용** :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법정 이자율(연27.9%) 초과 징수 행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불법 유사수신 행위, 불법 대부광고(전단지, 전화, 문자, 팩스), 미등록 대부행위,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채무 조정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12:00~13:00, 토·공휴일 휴무)
- **위치** :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031-729-2577~8

'나눔으로 행복한 성남' 「희망2018나눔캠페인」 방송모금

- **일시** : 12.15(금), 13:00~16:00(생방송)
- **장소** : 성남시청 1층 로비
- **참여대상** : 누구나(기업, 단체, 개인 등)
- **후원방법** : 현장에서 성금 또는 물품 접수
  ※후원계좌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협 143-17-006282)
- **사용처** : 성남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주관**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방송네트워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1-220-7944
성남시 복지지원과 031-729-2841~3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12월 프로그램

▶가족상담실 이용안내

- **내용** : 부부관계 및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 **면접상담** : 월~금 10:00~18:00, 월~목 18:00~21:00, 토 10:30~15:30(공·휴일 휴무)
  ※ 전화상담 후 사전 예약을 거쳐 상담 진행(센터 내방)
- **전화상담** : 월~금 13: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031-755-9338
- **사이버상담** : 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go.kr) 접속, 사업안내→가족상담사업→사이버상담 게시판에 등록(상담 진행)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1번)

▶워킹맘·워킹대디의 직장생활 지원 - 직장 고충상담(개인상담)

- **일정** : 매주 화요일 18:00~21:00
- **장소** : 성남시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내 상담실
- **대상** : 성남시 거주 및 소재 근로자(자녀 동반 불가)
- **내용** : 부당해고, 퇴직금,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 **신청** : 화요일~금요일 13:00~21:00(전화 접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팀 031-754-9327

베이비시터 취업교육

- **대상** : 교육수료 후 취업예정자
- **교육일정** : 12.5(화)~12.8(금) 13:00~18:00
- **내용**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케어법, 사고예방법, 아기목욕, 우유병 소독, 동화구연, 일지 작성방법 등
- **제출서류** : 등본, 보건증, B형간염 검사결과증, 증명사진 각 1부
- **접수기간** : 11.20(월)부터 방문접수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031-701-2501~2

제5회 전국 마술대회 및 공연(갈라쇼)

- **일정** : 12.16(토) 13:00~18:00
- **내용** : 마술에 재능이 있는 20인 경연(주니어, 시니어 부문) 및 갈라쇼
-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홀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 031-703-0033

정부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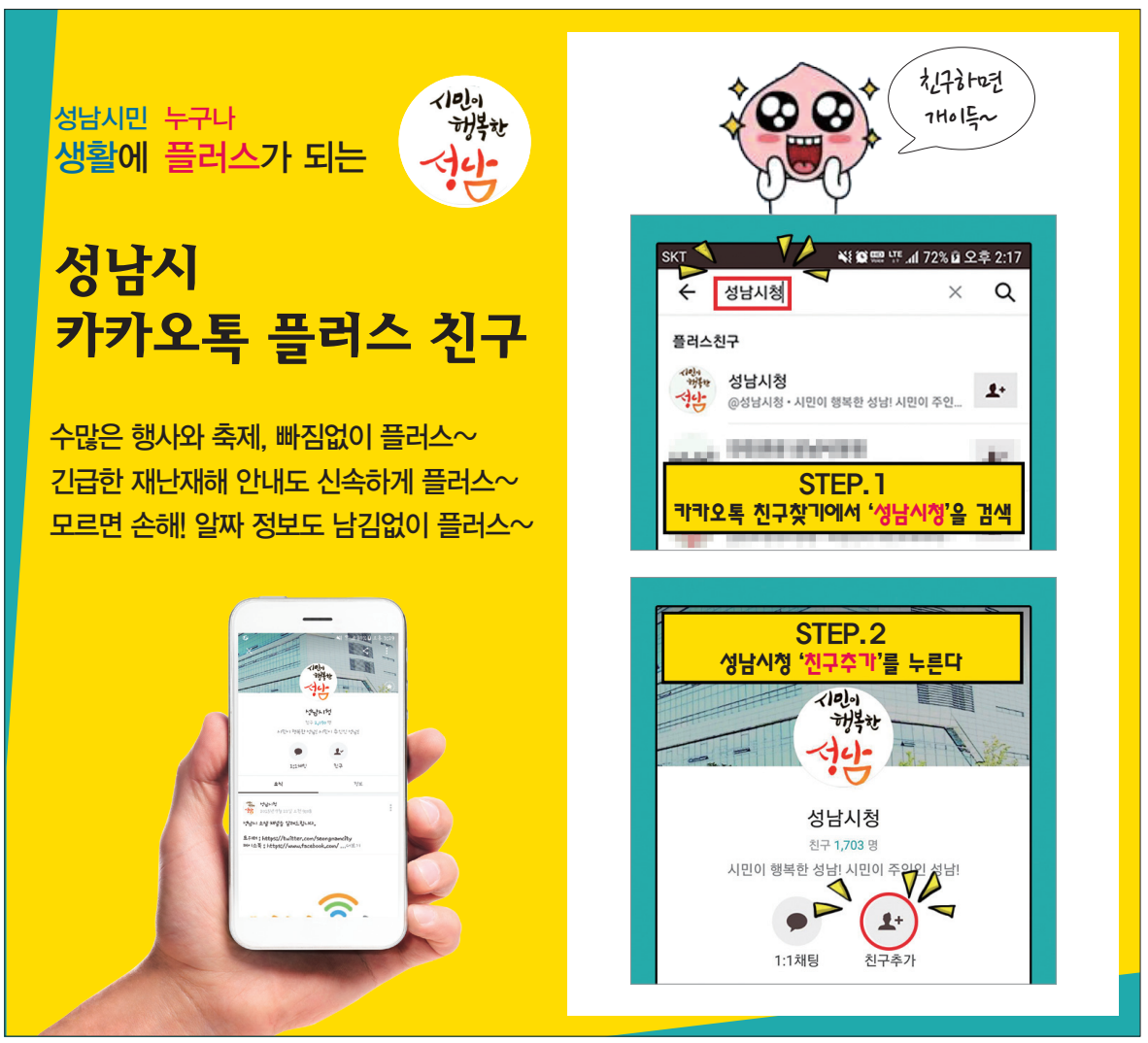
- **대상**(아래 조건 중 1개만 해당하면 됨)
  - 개인신용등급 6~10등급(5등급도 상담가능)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80,780원 미만인 자
  -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자
- **대출종류**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 전환보증금 2천만 원 이내 연 2.5% 고정금리(임대료 연간 70만 원 절감)
  - **자영업자** : 운영자금, 차량구입자금(용달차, 개인택시) 2천만 원 이내 연 4.5%(4개월 성실 상환시 연 3.5%)
  -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정, 장애인 생계자금 1천2백만 원 이내 연 3.0%
- **위치** : 분당구 성남대로 912, BYC빌딩 503호(야탑역 2번출구)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경기성남법인 031-721-2103~6

정자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안내

- **업무개시** : 2017.12.11(월)
- **이전장소**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4-7(환호빌딩 2층)
- **운영기간** : 2017.12.11~2018.5월 말(예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택전시관 별관에서 운영
  ※ 인근 금산프라자 주차장 이용(30분 무료)

정자동주민센터 031-729-7681~2



모바일 비전성남

어플 설치하면 필요한 정보가 내 손 안으로!

▶ **설치방법**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비전성남**' 검색 후 설치

- **'성남안테나'**
  성남시의 교육,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쉽게 알려 드립니다.
- **시정메모 및 현장취재**
  성남시 최신 소식과 기자단의 생생한 현장스케치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 **Push 알림 서비스**
  새소식 업로드 시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성 남 시
WWW.SEONGNAM.GO.KR

응답하라 신흥2동! 추억여행

볼륨을 높여요! 우리 마을 라디오 방송 '아롱이 다롱이'

40여 년 전 불모지에 가깝던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삶의 터전 신흥2동. 다소 고단한 삶이었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웃이 있기에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제 재개발로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의 모습은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현재의 수정구 신흥2동은 해당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마을을 떠난 상태이고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의 일부 주민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이주를 못한 이주 예정자들이 남아서 휑하니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이야기, 떠나간 이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떠나온 자취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위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흥2동.

라디오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동네 이야기 전해 듣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 정감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아롱이 다롱이'는 지난 7월에 시작됐다. '신흥2동에서의 추억'이란 주제로 시작해 '통장의 추억'으로 이어져 벌써 7회째, 이번 주제는 '가을'이란다.

가을이란 한 가지 주제에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옷 정리, 김장 걱정, 매주마다 지출되는 결혼 축의금에 관한 이야기 등 여섯 명 진행자들의 입에선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현직 통장 등 지역 주민이 진행자가 돼 토크형식으로 주제를 풀어나간다.

모두가 방송은 난생 처음이라는데 제법 능숙해 보인다. '재밌게 들었다', '그런 일도 있었어?', '생각보다 잘한다'는 등 "이웃들의 방송 청취에 대한 반응도 즐겁고 처음 경험하는 방송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진행자 김정의 통장은 말한다.

최필규 신흥2동 행정팀장은 "현재는 성남아트센터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지만 12월엔 주민센터 내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고 문화강좌에 제작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교육과 동시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아롱이다롱이는 모바일 어플 〈팟빵〉을 다운받아 신흥2동 검색 후 이용하거나 수정구 홈페이지 또는 검색창에 'www.podbbang.com/ch/14752' 입력 후 청취할 수 있다.

신흥2동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 찾는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즐비하게 늘어서 살았지만 이웃과 함께했기에 훈훈했던 기억. 우리 동네엔 성남에서 유일하게 놀이동산이 있었지, 아~희망대공원엔 다람쥐 통이란 놀이기구도 있었고 유령의 집도 있었지, 희망대도서관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성남 제1공단이 있었던 우리 동네, 신흥2동의 옛 정취가 누군가의 낡은 앨범 속엔 남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이 철거되고 나면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 신흥2동의 옛 풍경을 보관하기 위한 작업으로 안다미로(마을리더)에선 '응답하라 신흥2동! 추억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화 대표는 "마음속에서도 희미해져 갈 살아온 터전에서의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작업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우선 기증된 사진은 '그리운 나의 고향 신흥2동이여!', '신흥주공아파트가 사라졌어요' 등의 제목으로 세이브존, 위례31단지 등에 전시해 사진 수집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진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이메일(choihbm@korea.kr), 동 주민센터 직접 전달 등으로 기증하면 된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라디오방송 녹음 중.
왼쪽부터 이수연, 김정의, 유수빈, 안영란 통장 (위)
응답하라 신흥2동,
기증된 사진정리 (아래)